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3, 529-550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이 재 창　　최 인 화　　박 미 진†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판으로 표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진로사고검사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였고 3,811명의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전국 표집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를 근거로 개발된 검사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신뢰도 측정에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고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공인타당도도 검증되었다. 논의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진로사고검사의 활용방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그리고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의사결정, 진로상담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최인화, 박미진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임.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박 미 진,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화 : 02-320-1356　E-mail : meejini@hanmail.net

개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진로상담의 최종결과는 비록 그것이 잠정적이거나 실행을 위한 목표가 될지라도 어떤 '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은 진로상담의 중요한 과정이 된다(이재창, 1988). 최근 심리치료 및 상담에서 뿐 만 아니라 진로상담에서도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지적 접근 경향이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심리치료 및 상담에서의 인지적 접근은 사람들의 감정 혹은 행동은 사건이나 상황 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해석, 즉 인지(사고, 신념)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이다. 진로상담에서의 인지도 진로관련 정보처리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진로행동 등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 혹은 행동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지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면서 진로측정연구에서 진로관련 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dysfunctional career thinking)와 진로관련 효능감이라는 두 가지 인지변인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이경희, 2001; Hackett & Watkins, 1995). 두 가지 변인 중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연구자에 따라 진로사고(Sampson, Peterson, Lentz, Reardon, & Saunders, 1996), 진로신화(Lewis & Gilhousen, 1981), 비합리적 기대(Nevo, 1987), 역기능적 인지(Corbishley & Yost, 1989), 역기능적 진로신념(이경희, 2001; Krumboltz, 1994), 자기파괴적 생각(Dryden, 1979)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들 역기능적 사고는 내담자의 의사결정 회피,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 흥미저하, 진로준비활동 방해 등을 야기함이 밝혀졌다(Corbishley & Yost, 1989; Lewis & Gilhousen, 1981).

Sampson, Peterson, Lentz, Reardon과 Saunders (1996)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진로상의 역기능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 진로사고검사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세 개의 하위척도 중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개인이 가지는 곤란수준을 측정하며,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은 대부분의 불안과 연관되어 있으며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개인이 가지는 곤란수준을 평가한다.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우선 순위와 중요한 타인의 의견을 분별하지 못하는 곤란수준을 평가하는 하위척도이다(Sampson et al., 1996). 진로사고검사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은 진로문제해결 및 의사결정과 연관된 광범위한 관련영역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기독백, 자기통제와 모니터링과 같은 메타인지(metacognitions)를 설명할 수 있으며 진로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상의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개념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사고검사의 이론적 근거로 채택되었다. 인지치료는 사고, 행동, 정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의 과정, 역기능적 도식의 영향 그리고 체계적인 자동적 사고오류의 영향 등을 설명할 수 있고 역기능적 사고의 수정뿐 아니라 진로미결정에 따른 불안 및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과정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로 채택되었다

(Sampson et al., 1996).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Peterson, Sampson과 Reardon(1991)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를 진로영역에 적용한 것이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Zunker, 2001).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진로문제가 일반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는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로선택이 두 가지 정보 즉, 개인의 인지로 해석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에 대한 다소 불안정하며 유동적인 자기정보(self-knowledge)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검증가능한 사실과 개념으로 구성되는 직업정보(occupational-knowledge)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기정보와 직업정보간의 서로 다른 변동폭은 개인으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개인이 집중하고 기억하는데 방해가 된다(Sampson et al., 1996).

인지적 정보처리의 모델은 피라미드 형태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가장 하단에는 자기정보와 직업정보로 구성된 정보영역이 있고, 정보영역 위에 의사결정기술 영역이 위치한다. 의사결정기술영역에는 CASVE라는 정보처리기술이 포함된다. CASVE는 진로문제해결이 일차적으로 인지적 결정과정이라고 보고 '의사소통(Communication)-분석(Analysis)-통합(Synthesis)-평가(Valuing)-실행(Execution)'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봉환 등, 2000).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에는 실행과정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에는 초인지가 포함된다. 초인지는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인지적 전략의 선택과 지속을 조절한다. 정보영역, 의사결정기술영역 및 실행과정영역으로 구성된 피라미드의 영역들은 상하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장 상위의 초인지는 모든 영역의 내용과 기능에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기술은 정보영역과 내용 및 기능에 영향을 준다(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Sampson et al., 1996).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함께 진로사고검사의 이론적 근거가 된 인지치료는 진로의사결정과정 내에서 야기되는 역기능적 사고, 부정적 정서 등을 진로상담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며 이는 또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킴으로써 순환과정을 만든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끊겨야 하며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기능적 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지치료 방식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키면 내담자는 진로탐색과 문제해결,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직업선택을 하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가 없거나 반증될 증거가 있는데도 내담자의 임의 추론으로 부모의 선택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전의 적성검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진로관련 검사와 진로정보의 활용을 시간낭비라고 과잉 일반화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등의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된다. 결국, 인지치료를 통해 내담자들은 역기능적 사고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의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내담자는 앞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즉, 내담자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을 토대로 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된다(Sampson et al., 1996).

진로사고검사가 측정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선택에 대한 불안감, 결정지연, 중요한 타인에 대한 의존 혹은 책임전가,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써 성급하고 충분한 정보가 없는 선택, 불충분한 직무수행 또는 직업 불만족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의 반복적인 직업변화, 직업탐색행동의 감소, 자기 자신에 대한 제한된 혹은 왜곡된 통찰, 직업적 대안평가에 있어서 고정관념, 동기 부족,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만족감, 의사결정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확신부족 등 진로관련 정보처리와 진로의사결정과정 및 진로행동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Sampson et al., 1996). 진로사고검사를 통한 여러 연구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우울, 완벽주의와 같은 변인 및 미결정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Judge & Locke, 1993; Lusting & Strauser, 2002; Osborn, 1999;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Wright, 2000).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 예를 들어, 범죄자, 물질남용 성인, 학습 무능력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그리고 구직을 준비하는 장애여성의 경우 더 많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특성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련성이 검증되었다(Dodge, 2001; Keim, Strauser, & Ketz, 2002; Strauser, Lusting, Keim, Ketz, & Malesky, 2002).

우리나라에서는 박미진 등(2001)에 의한 고등학생의 진로유형화 연구에서 진로에 관한 역기능적 사고가 많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 진로정체감이 낮으며, 미결정수준,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결정집단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 하위척도 중 의사결정 혼란이 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고향자와 강혜원(2003)은 대학생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부 및 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대부분의 대학생 남녀 모두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상담에서 진로사고검사는 다음의 네 가지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진로사고검사는 선별도구로 사용된다. 현재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서는 흥미검사(예를 들어, Holland의 Self-Directed Search)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진로정체감이 부족하거나 낮은 진로결정준비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흥미검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낮은 진로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의 흥미패턴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진로정체감이 증가되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사고검사는 흥미검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선별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선별도구로서 진로사고검사는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자를 찾아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Vernick, 2002).

둘째, 진로사고검사는 진로문제의 평가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3개의 하위척도 점수를 분석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진로문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활용 예로, Vernick(2002)은 진로를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Sue라는 여성의 하위척도점수에서 비교적 낮

게 나온 의사결정혼란 점수와 다소 높게 나온 수행불안과 외적갈등 점수를 통해 이 여성이 자기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정보처리과정에서 부정적 진로사고로 제한되어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진로사고검사의 주된 활용방안으로 학습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워크북을 통해 보조적 학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의 워크북(Improving Your Career Thoughts: A Workbook for the Career Thoughts Inventory)(Sampson et al., 1996)은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진로사고검사의 전체 점수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정도를 평가하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별 점수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이 지닌 역기능적 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사고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진로사고검사의 48문항 각각에 대한 설명과 조언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수정된 진로사고를 실행으로 연결하여 실천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완성하도록 한다. 네 번째 영역에는 진로사고검사의 8개 내용차원이 의사결정기술 촉진을 위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되며 다섯 번째 영역에는 주변의 자원활용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진로사고검사의 워크북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진로사고검사는 진로상담 및 진로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Reed, Reardon, Lenz와 Leierer(2001)가 대학 진로강좌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진로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이 진로사고 검사에서 부정적 진로사고가 유의하게 감소됨을 밝혀 실시된 진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진로사고검사는 한국판으로 번역되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유형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박미진 등, 2001; 이재창 등, 2002)에서 사용되었으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표준화 검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사고검사를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안된 검사의 각종 신뢰도와 타당도를 산출하는 표준화과정을 통해 실제 진로상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 법

한국판 진로사고검사의 번안 과정

진로사고검사의 번안은 대표 개발자(Sampson, J. P. Jr)와 출판사(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의 허가 하에 1차 번역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이 번역한 문항은 박사학위 소지자 2명(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4명(이중 언어자 1명 포함)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에게 실시한 후 재수정 되었다. 번역한 문항은 출판사의 연구허가 조건에 따라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저자인 Sampson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후 Sampson이 지적한 역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1개 문항의 수정과 용어사용과 관련된 의견조율을 거쳐 초기문항을 확정하였다.

초기문항은 다시 수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초기문항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연구(박미진 등, 2001; 이재창 등, 2002)를 통해 1차 번역된 문항

이 조사나 단어의 사용에서 다소 모호하고 어색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초기문항을 좀 더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어국문학 전공자 2인과 이중언어자 2인(비전공자)의 조언을 통해 1차 번역의 문장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들이 최종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연구대상

진로사고검사의 원본이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만큼 한국 표준화 연구의 대상도 동일하게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현황은 표 1, 표 2, 표 3과 같다.

고등학생 집단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 등 7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한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최소 한 개교 이상의 실업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학급단위별로 표집하여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고등학생)

구 분		N	%
성별	남자	772	53.3
	여자	677	46.7
계열	인문계	999	68.9
	실업계	450	31.1
학년	1학년	755	52.1
	2학년	512	35.3
	3학년	182	12.6
거주지	서울	584	40.3
	인천・경기	286	19.7
	충청도	113	7.8
	전라도	124	8.6
	경상도	210	14.5
	강원도	97	6.7
	제주도	35	2.4
진로상담 여부	진로상담	269	18.6
	진로관련 심리검사	249	17.2
	안함	894	61.7
	무응답	37	2.6
전체		1,449	100.0
평균연령		16.47세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대학생)

구 분		N	%
성별	남자	574	43.3
	여자	753	56.7
학과 계열	인문계열	902	68.0
	이과계열	313	23.6
	예체능계열	60	4.5
	기타	52	3.9
학년	1학년	306	23.1
	2학년	362	27.3
	3학년	379	28.6
	4학년	280	21.1
거주지	서울	427	32.2
	인천・경기	324	24.4
	충청도	129	9.7
	전라도	164	12.4
	경상도	188	14.2
	강원도	51	3.8
	제주도	44	3.3
진로상담 여부	진로상담	132	9.9
	진로관련 심리검사	160	12.1
	안함	1,008	76.0
	무응답	27	2.0
전체		1,327	100.0
평균연령		21.62세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인)

구 분		N	%
성별	남자	501	48.4
	여자	534	51.6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0	1.0
	전문가	175	16.9
	기술공 및 준전문가	77	7.4
	사무직원	340	32.9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40	13.5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32	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0	1.0
	단순노무직 근로자	62	6.0
	무직	122	11.8
최종 학력	중졸이하	8	.8
	고졸	393	38.0
	대학졸	557	53.8
	대학원졸	68	6.6
	무응답	9	0.9
거주지	서울	236	22.8
	인천·경기	355	34.3
	충청도	64	6.2
	전라도	146	14.1
	경상도	134	12.9
	강원도	54	5.2
	제주도	46	4.4
진로 상담 여부	진로상담	55	5.3
	진로관련 심리검사	90	8.7
	안함	860	83.1
	무응답	30	2.9
전체		1,035	100.0
평균연령		30.34세	

1,449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검사는 안내문을 통해 담당 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표집기간이 9월에서 12월사이인 관계로 고등학교 3학년의 표집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년에 따른 분포는 다소 불균형을 보이게 되었다.

대학생 집단

대학생 역시 전국을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표집되었고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로 교양강좌시간에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안내문을 통해 담당 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대학생의 성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고 전공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이과계열 전공자가 인문계열 전공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여학생의 비율과 인문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집이 주로 교양강좌를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성인집단

성인표집은 전국을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표집되었고 주로 편의상 접촉이 가능한 사업장내 근로자, 평생교육원에 수강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특수대학원에 재학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1,035명이 임의 표집되었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62세까지였고 주로 20대(48.7%)와 30대(31.6%)였다. 직업분류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2002. 1)에 따랐다.

성인의 표집은 표집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영문판 원 진로사고검사의 대상에 성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표준화 대상으로도 구성하였을 때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 진로상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집문제에 의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로사고검사의 한국판 표준화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연구도구

진로사고검사와 진로사고검사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

Sampson 등(1996)에 의해 개발된 진로사고검사(CTI)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하도록 개발된 검사이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CIP의 내용차원(정보처리과정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역기능적 사고를 내용으로 초기 195문항 개발한 후 패널 분석과 문항반응분석을 통해 80문항으로 축소하였다. 80문항은 다시 요인분석, 판별분석 등을 통해 최종 48문항으로 축소되었고 최종 48문항에 대한 검사-재검사신뢰도, 내적 신뢰도의 신뢰도와 요인분석에 의한 구성타당도, 공인타당도, 진로상담 내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별분석을 통한 준거관련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진로사고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전체 응답 중 무응답이 5개 이상이면 무효 처리하며 본 연구에서도 무응답이 5개 이상인 사례는 제외되었다. 진로사고검사의 모든 항목은 효과적인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전반적인 역기능적 사고를 나타내는 총점과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고 자신에 대한 명확성(self-clarity)이 부족하여 자신의 흥미나 능력, 직업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가지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다(Sampson et al., 1996).

① 의사결정 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s: DMC, 14항목):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척도이다(문항의 예; 나는 내가 흥미있는 전공이나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의사결정 혼란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우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

②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CA, 10항목): 진로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미결정을 지속시키게 된다(문항의 예; 내 관심사가 자주 변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행 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기는 등의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③ 외적 갈등(External Conflict: EC, 5항목):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는 갈등에 관한 것으로 중요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간에 균형 조절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이다(문항의 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의 전공이나 직업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진로결정 척도는 교육적-직업적 미결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에 따라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76)에 의해 개발되었다. 진로결정척도는 확신성 척도(Certainty scale)와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전체는 19문항으로 되어 있다. CDS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형태의 18 문항과 자유반응식 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반응식 1 문항은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확신성 척도는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반면 미결정 척도는 경험적 연구에서 추출된 16가지 미결정의 선행조건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미결정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고향자(1992)에 의하면 CD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반분신뢰도는 .80,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의 타당도는 의사결정유형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합리적 유형과는 r=-.24, 직관적 유형과는 r=.10, 의존적 유형과는 r=.44)로 확인되었다.

My Vocational Situation(MVS)

총 20문항의 My Vocational Situation은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것으로 진로정체감, 진로정보 및 방해요인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점수는 진로정체감척도의 경우 "그렇다", "아니다"에 응답한 수를 세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봉환(1997)의 연구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MVS의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은 개인이 지닌 삶의 목적과 자신의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으로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은 경우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선택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반면 진로정체감 점수가 낮을수록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기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진로선택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허자영, 1996). 진로 정보(Occupational Information) 척도는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방해 요인(Barriers) 척도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외적인 방해요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 상담자는 내담자가 확인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선택의 방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선택의 방해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1980)의 검사지를 허자영(1996)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자영(1996)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83, 진로정보는 .58, 방해요인는 .43의 Cronbach's α를 보였다.

성격진단검사

성격진단검사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성인의 성격적 특징 즉, 인성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제작된 인벤토리형의 검사로 총 15개의 척도(특성), 3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개의 척도에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등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9개의 기술척도와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내폐증 등 정신병리적 경향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5개의 임상척도 그리고 수검자의 수검태

도를 파악하는 타당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69).

성격진단검사의 응답은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고 원점수는 규준에 따라 백분위점수로 환산된다. 백분위점수로 25점 이하는 낮은 특성 혹은 경향으로, 75점 이상은 높은 특성 혹은 경향으로 해석된다.

성격진단검사는 .71에서 .90의 반분신뢰도, .70에서 .89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의 성격검사와도 양호한 상관을 보여 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이상로 등, 1969).

절차 및 분석 방법

전체 연구대상자 3,811명에게 진로사고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일부 피검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을 위해 두 번의 검사 또는 진로결정척도 등의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0.0과 AMOS 4.01을 이용하였다.

결 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사고검사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반응비율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의 하위척도와 전체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제시된 하위척도와 전체 점수가 대상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한 결과, 하위척도와 전체 점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혼란의 경우 $F=20.689(p<.001)$로 Scheffé 사후검증결과 고등학생이 대학생과 성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수행불안은 $F=79.834(p<.001)$로 Scheffé 사후검증결과 고등학생, 성인, 대학생 순으로 높았다. 외적 갈등은 $F=47.356(p<.001)$로 Scheffé 사후검증결과 고등학생이 대학생과 성인보다 더 높았다. 진로사고 전체는 $F=47.129(p<.001)$로 Scheffé 사후검증결과 고등학생이 대학생과 성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판 원 진로사고검사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 및 전체 점수에서 대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판 진로사고검사도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구분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신뢰도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4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연구 대상자 중 292명(고등학생 106명, 대학생 117명, 성인 69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검사-재검사 측정에서 진로사고검사 전체는 고등학생은 .83, 대학생은 .75, 성인은 .78, 전체 대상은 .75의 상관계수를 보여 비교적 양호한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하위척도인 의사결정혼란은 .73-.80, 수행불안은 .61-.72, 외적갈등은 .55-.63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집단별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간의 일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신뢰도 지수로 내적 신뢰도는 진로사고검사 전체가 고등학생 .95, 대학생 .95, 성인 .94, 전체 대상 .95의 양호한 내적 신뢰도계수를 보였고 하위척도별로도 .60에서 .90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계수를 보였다. 표 7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진로사고검사의 문항점수 분포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71	.80	.87	-.02	48.4	34.9	14.0	2.6	.1
2	1.92	.73	-.64	.82	4.2	17.3	60.6	17.8	.2
3	.89	.80	.45	-.28	33.1	45.4	18.2	2.7	.6
4	1.38	.82	-.09	-.54	14.7	38.8	39.4	6.9	.2
5	1.20	.85	.18	-.61	21.6	42.5	29.8	5.9	.2
6	1.39	.84	-.16	-.46	14.5	37.5	40.3	7.2	.5
7	1.38	.82	.05	-.55	13.8	42.0	36.3	7.8	.1
8	1.15	.82	.29	-.46	21.8	46.3	26.3	5.5	.1
9	.99	.78	.48	-.03	26.4	51.4	18.2	3.8	.1
10	.91	.82	.54	-.28	34.4	43.5	18.2	3.7	.3
11	.93	.81	.51	-.12	31.4	46.9	17.4	3.8	.5
12	1.14	.84	.29	-.51	23.0	45.0	26.3	5.6	.1
13	.65	.74	.99	.70	48.6	40.3	8.8	2.3	.1
14	1.31	.83	.00	-.65	17.4	39.8	36.6	6.1	.1
15	1.13	.77	.31	-.10	19.0	52.6	23.9	4.3	.2
16	1.28	.78	.02	-.47	15.3	45.3	34.9	4.4	.1
17	1.46	.80	-.01	-.30	10.8	39.2	41.6	8.0	.4
18	.92	.74	.27	.31	25.6	55.1	15.6	2.3	1.3
19	1.02	.80	.40	-.21	25.9	49.2	20.6	4.0	.3
20	.93	.77	.45	-.15	29.9	49.5	17.7	2.7	.2
21	1.31	.81	-.08	-.40	15.3	42.3	36.5	5.4	.6
22	1.33	.84	-.12	-.42	15.7	39.6	37.5	6.4	.8
23	1.02	.79	.46	-.15	26.1	50.1	19.6	4.1	.1
24	1.09	.82	-.03	-.58	16.8	40.8	36.6	5.6	.2
25	1.13	.86	.26	-.42	23.1	44.8	25.2	6.3	.7
26	1.36	.83	-.04	-.48	14.9	40.6	37.3	6.9	.3
27	1.06	.80	.29	.19	22.8	50.0	22.5	3.8	.9
28	1.09	.79	.35	-.02	22.7	49.0	24.3	3.8	.1
29	1.35	.83	.00	-.36	15.8	39.5	37.8	6.7	.2
30	1.53	.84	-.24	-.31	12.6	30.9	46.6	9.6	.1
31	1.72	.85	-.39	-.32	9.2	25.3	49.2	16.3	.1
32	1.79	.87	-.31	-.57	8.0	26.9	43.3	21.8	.1
33	1.30	.87	.03	-.78	19.8	37.0	36.0	7.2	.0
34	1.39	.80	-.04	-.46	13.1	41.2	38.7	6.8	.1
35	1.73	.83	-.39	-.23	8.1	25.8	50.0	15.8	.1
36	1.45	.79	-.18	-.30	10.9	39.0	43.0	6.8	.3
37	1.13	.88	.30	-.66	26.2	40.5	26.5	6.6	.2
38	1.59	.83	-.39	-.08	9.5	31.0	47.7	11.1	.7
39	1.18	.84	.19	-.60	22.0	43.1	29.3	5.5	.2
40	1.28	.82	-.05	-.24	15.2	44.7	33.5	5.6	1.0
41	1.75	.91	-.29	-.67	9.5	27.9	40.0	22.4	.2
42	1.34	.79	-.02	-.35	13.5	44.1	36.4	5.7	.3
43	.97	.80	.41	-.21	28.8	47.7	19.4	3.5	.5
44	.99	.77	.38	-.04	25.4	52.0	19.1	3.1	.4
45	1.11	.82	.28	-.47	23.9	45.7	25.5	4.7	.2
46	1.77	.86	-.40	-.30	8.3	25.1	47.7	18.8	.2
47	1.66	.85	-.32	-.41	10.2	27.9	47.4	14.5	.1
48	1.51	.85	-.17	-.58	13.1	33.1	43.0	10.7	.1

주. 진로사고검사의 문항점수는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 범위로 계산됨.
고등학생 1,449명, 대학생 1,327명,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함.

표 5.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M	SD
의사결정 혼란	고등학생	15.57	7.49
	대학생	13.86	6.76
	성인	14.54	6.83
외적갈등	고등학생	16.39	5.62
	대학생	14.85	4.79
	성인	13.78	5.06
수행불안	고등학생	6.97	2.74
	대학생	6.05	2.35
	성인	6.37	2.50
진로사고 전체	고등학생	65.06	21.65
	대학생	58.09	19.31
	성인	58.89	20.39

주. 고등학생 1,449명, 대학생 1,327명,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함.

표 6. 진로사고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척 도	고등학생 (106명)	대학생 (117명)	성인 (69명)	전체 (292명)
의사결정혼란	.80(.72)*	.76(.82)	.73	.77(.77)
수행불안	.65(.70)	.61(.79)	.72	.61(.75)
외적갈등	.63(.52)	.55(.74)	.60	.52(.63)
진로사고 전체	.83(.69)	.75(.86)	.78	.75(.77)

주. *( )안은 영문판 진로사고검사의 4주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이며 영문판 진로사고검사는 고등학생(73명), 대학생(48명)만을 대상으로 함.

표 7. 진로사고검사의 내적 신뢰도

척 도	고등학생 (1,449명)	대학생 (1,327명)	성인 (1,035명)	전체 (3,811명)
의사결정혼란	.89(.91)*	.90(.94)	.87(.94)	.89
수행불안	.62(.85)	.62(.88)	.60(.91)	.62
외적갈등	.85(.74)	.82(.77)	.82(.81)	.84
진로사고 전체	.95(.96)	.95(.96)	.94(.97)	.95

주. *( )안은 영문판 진로사고검사의 내적 신뢰도이며 영문판 진로사고검사는 고등학생(396명), 대학생(595명), 성인(571명)을 대상으로 함

타당도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간의 상호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는 근거가 된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의 내용차원과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란 측정되는 내용이 연구되는 내용을 잘 대표해 주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표성은 연구내용

표 8. 진로사고검사 하위척도간의 상관

구 분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고등학생 (1,449명)	의사결정혼란	-		
	수행불안	.67**(.65)*	-	
	외적갈등	.56**(.70)	.51**(.56)	-
대학생 (1,327명)	의사결정혼란	-		
	수행불안	.67**(.71)	-	
	외적갈등	.63**(.55)	.56**(.52)	-
성인 (1,035명)	의사결정혼란	-		
	수행불안	.72**(.80)	-	
	외적갈등	.65**(.72)	.62**(.66)	-
전체 (3,811명)	의사결정혼란	-		
	수행불안	.68**(.74)	-	
	외적갈등	.61**(.65)	.56**(.58)	-

**p<.01

주. *( )안은 영문판 진로사고검사의 내적 신뢰도이며 영문판 진로사고검사는 고등학생(396명), 대학생(595명), 성인(571명)을 대상으로 함.

표 9. 진로사고검사 점수와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

구 분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사고 전체
자기정보(Self-Knowledge, SK)	.75**	.71**	.64**	.83**
직업정보(Occupational Knowledge, OK)	.75**	.71**	.54**	.84**
의사소통(Communication, CO)	.88**	.67**	.62**	.86**
분석(Analysis, AN)	.94**	.70**	.58**	.90**
종합(Synthesis, SY)	.75**	.71**	.55**	.87**
평가(Valuing, VA)	.66**	.76**	.78**	.83**
실행(Execution, EX)	.69**	.71**	.68**	.83**
실행과정(Executive Processing, EP)	.73**	.77**	.60**	.85**

**p<.01

주. 고등학생 1,449명, 대학생 1,327명,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함.

과 측정에 포함될 내용 사이에 일치성이 존재할 때 확보된다(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1997).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사고검사 전체 및 3개의 하위 척도와 8개의 내용차원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사고검사의 내용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의 8개 CIP 내용차원은 차원간의 높은 상호상관 때문에 하위척도로는 활용되지 않고 진로사고검사 워크북에서 진로의사결정 체크리스트로 사용된다.

구성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진로사고검사의 경로 모형과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진로사고검사는 총 48문항 중 하위요인으로 속하는 29문항과 전체 점수에는 포함되나 하위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은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진로사고검사의 경로 모형과 적합도 지수는 그림 1과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적합도로서 χ^2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인 NFI (Norm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s)도 함께 고려하였다. NF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계수, 2001).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2값은 26836.286(df=1122, p<.001)으로 유의한 수준이었고 NFI와 CFI은 .90이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RMAEA는 .08이하로 어느 정도 적절한 것

KCI

그림 1. 진로사고검사의 경로모형

표 10. 진로사고검사에 대한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NFI	CFI	RMSEA
전체	26836.286	1122	.942	.944	.078
고등학생	11288.822	1122	.935	.941	.079
대학생	10272.976	1122	.938	.945	.078
성인	88889.021	1122	.933	.941	.079

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대상별로 χ^2값과 적합도 지수가 표 10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대상별 결과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11. 진로사고검사 점수와 MVS, 진로결정척도, 성격특성간 상관분석

구	분	대상(336명)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사고 전체
MVS	진로정체감	-.62**	-.61**	-.36**	-.67**
	진로정보	.07	.22**	-.01	.13*
	방해요인	.46**	.32**	.31**	.47**
CDS	확신성	-.50**	-.49**	-.23	-.53**
	미결정	.61**	.60**	.39**	.67**
성격진단검사	안정성	-.25**	-.27**	-.24**	-.32**
	지배성	-.29**	-.14**	-.06	-.28**
	사회성	-.28**	-.21**	-.24**	-.30**
	책임성	-.30**	-.33**	-.14*	-.33**
	사려성	-.11*	-.06	.07	-.07
	동조성	.03	.01	.15	.05
	남향성	-.18**	-.10	-.07	-.18**
	충동성	.19**	.27**	.18**	.26**
	우월성	-.37**	-.23**	-.29**	-.39**
	타당성	-.15**	-.16**	.01	-.14**
	우울증	.40**	.31**	.29**	.44**
	불안증	.37**	.32**	.30**	.42**
	편집증	.26**	.25**	.26**	.31**
	내폐증	.32**	.27**	.34**	.38**
	신경증	.30**	.31**	.23**	.38**

*p<.05 **p<.01

주. MVS: My Vocational Situation, CDS: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공인타당도는 영문판 진로사고검사의 표준화에서도 검증된 진로관련검사인 MVS 및 CDS와 진로사고검사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되었고 편의상 NEO-성격검사 대신 성격진단검사와의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

피검자 336명(고등학생 106명, 대학생 159명, 성인 71명)의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MVS의 하위척도인 진로정체감은 의사결정혼란과 .62(p<.01), 수행불안과 -.61(p<.01), 외적갈등과 -.36(p<.01), 진로사고 전체와 -.67(p<.01)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선택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진로정보는 수행불안과 .22(p<.01), 진로사고 전체와 .13(p<.05)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선택한 진로에 대한 외적인 방해요인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인 방해요인과 의사결정혼란은 .46(p<.01), 수행불안과는 .32(p<.01), 외적갈등과는

표 12. 연구대상자별 진로사고검사 점수와 MVS, 진로결정척도, 성격특성간 상관분석

구 분		고등학생 (106명)				대학생 (159명)				성인 (71명)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사고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사고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사고 전체
MVS	진로정체감	-.55**	-.50**	-.30**	-.59**	-.66**	-.68**	-.42**	-.76**	-.81**	-.73**	-.58**	-.80**
	진로정보	.02	.07	.03	.08	.04	.29**	.04	.15	.34**	.36**	.20	.31**
	방해요인	.40**	.34**	.25**	.41**	.44**	.21**	.34**	.46**	.67**	.48**	.45**	.64**
CDS	확신성	-.34**	-.42**	-.12	-.38**	-.60**	-.52**	-.30**	-.64**	-.68**	-.58**	-.38	-.65**
	미결정	.53**	.47**	.33**	.57**	.58**	.64**	.43**	.70**	.84**	.76**	.57**	.85**
성격진단검사	안정성	-.23**	-.25**	-.23*	-.30**	-.18*	-.17*	-.28**	-.26**	-.45**	-.46**	-.22	-.47**
	지배성	-.33**	-.18	-.09	-.27**	-.33**	-.14	-.13	-.32**	-.23	-.17	-.01	-.25*
	사회성	-.37**	-.36**	-.35**	-.40**	-.19*	-.13	-.21**	-.23**	-.27*	-.19	-.01	-.24*
	책임성	-.29**	-.31**	-.09	-.32**	-.29**	-.22**	-.24**	-.32**	-.39**	-.54**	-.12	-.42**
	사려성	-.04	-.01	.21*	.01	-.15	-.04	.01	-.10	-.18	-.18	-.05	-.19
	동조성	.06	-.03	-.01	.05	.14	.03	.19*	.15	-.13	-.05	-.11	-.06
	남향성	-.17	-.01	-.09	-.14	-.21**	-.11	-.14	-.21**	-.20	-.19	-.05	-.26*
	충동성	.16	.23*	.16	.26**	.18*	.20*	.19*	.23**	.23	.45**	.15	.31**
	우월성	-.41**	-.29**	-.30**	-.42**	-.33**	-.16*	-.34**	-.36**	-.29**	-.31**	-.16	-.40**
	타당성	-.14	-.08	.05	-.06	-.18*	-.20*	-.13	-.23**	-.23*	-.27*	-.03	-.24*
	우울증	.51**	.44**	.39**	.55**	.26**	.18	.22**	.29**	.48**	.42**	.27*	.52**
	불안증	.44**	.44**	.32**	.49**	.29**	.21**	.31**	.35**	.43**	.35**	.27*	.44**
	편집증	.27**	.24*	.31**	.31**	.22**	.19*	.27**	.28**	.28*	.38**	.13	.33**
	내폐증	.28**	.24*	.32**	.33**	.30**	. 23**	.35**	.37**	.42**	.40**	.31**	.46**
	신경증	.24*	.28**	.23*	.33**	.26**	.26**	.34**	.36**	.44**	.46**	.30*	.47**

*p<.05 **p<.01

주. MVS: My Vocational Situation, CDS: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31(p<.01), 진로사고 전체와 .47(p<.01)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척도와 진로사고간의 상관을 보면, 확신성의 경우, 외적갈등을 제외한 의사결정혼란(r=-.50, p<.01), 수행불안(r=-.49, p<.01), 진로사고 전체(r=-.53,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미결정의 경우, 의사결정혼란(r=.61, p<.01), 수행불안(r=.60, p<.01), 외적갈등(r=.39, p<.01), 진로사고 전체(r=.6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사고검사와 성격진단검사 결과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성격적 특성과 상관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격기술척도 중 안정성, 사려성, 우월성은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와 진로사고 전체점수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지배성, 사려성, 남향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충동성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임상척도에서는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내폐증, 신경증 등 임상척도 모두와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 및 진로사고 전체점수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p<.01).

대상자별로 진로사고검사와 진로관련검사인 MVS와 CDS, 성격검사인 성격진단검사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성격진단검사의 임상척도 모두와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 및 전체점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정신병리적 성격 측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참조분석으로 계절학기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검사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실시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 및 전체점수와 타당도 척도 중 F척도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K척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임상척도와의 상관에서는 우울증,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사회적 내향성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실용도

실제 임상장면에서 사용될 심리검사 도구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실용도 측면에서 진로사고검사는 실시시간이 7분에서 15분으로 짧고 채점이 빠르게 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어 진로상담에서 상당히 큰 실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 진로사고검사는 단순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측정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워크북을 통해 부정적 사고의 인지적 재구성과 실행계획수립 등 작업을 통한 개인상담 혹은 집단상담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를 근거로 개발된 진로사고검사를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여 역기능적 진로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를 통해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과정 내에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사고로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실천과정에 방해가 됨이 확인되고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및 기법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진로의사결정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나은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2차에 걸친 번안 및 문항수정을 통해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표준화과정은 최대한 영문판 원 진로사고검사의 표준화과정과 유사하게 진행시켰고 규준집단도 동일하게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준화를 위한 규준집단은 전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으로 총 3,811명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사고검사의 신뢰도는 검사도구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4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문항간 내적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진로사고 전체는 .75의 상관계수를 보였고 하위척도는 .52에서 .77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내적 신뢰도는 진로사고 전체에서 .95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고 하위척도에서는 .63에서 .8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로사고검사는 검사도구로서 양호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사고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내용 타당도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의 내용차원과의 상관으로 분석되었는데 .54에서 .94의 정적상관을 보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성타당도는 경로모형과 적합도로 분석되었는데 적합도 지수인 χ^2값, NFI(Norm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s)에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진로관련 타 검사와 성격검사의 척도와 상관분석으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진로관련검사인 MVS와 CDS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성격진단검사의 하위척도와 부분적인 상관을 보였다. 주로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MVS와 CDS의 상관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을수록 진로정체감과 진로확신성이 낮고 미결정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진단검사와의 상관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정도를 나타내는 안정성은 낮고 정신병리적 경향을 측정하는 임상척도들은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된 다면적 인성검사와의 상관분석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역기능적 사고가 진로미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건강적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 진로사고검사는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진로사고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진로사고검사는 흥미검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저해가 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내담자를 선별하고 또한 개인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의 특정 부분을 찾아내는 평가도구가 될 수 있다(Vernick, 2002). 이를 통해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김봉환, 1997)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진로사고검사는 선별과 평가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워크북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순차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eim, Struser 및 Ketz(2002)에 의하면 진로사고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상담 개입은 내담자의 자기점검(self-examination)을 촉진시키고 내담자와 상담자간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과제로 수행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즉, 진로사고검사는 검사뿐만 아니라 워크북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확인하고 내담자에게는 탐색하고 수정하며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학습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Sampson et al., 1996).

셋째, 진로사고검사는 개인상담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집단상담에서 집단지도자는 집단원이 자신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확인하고 집단회기내에서 제시하게함으로써 집단내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수정하고 대안적 사고를 함께 모색하는 소그룹 토의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만이 그러한 문제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의 워크북도 집단상담의 워크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는 진로의사결정과정내 인지적 영역에 대한 검사도구를 표준화한 것으로 이 검사를 통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나은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검사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할 수 있으므로 진로상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 표집 방식이나 표집수로 인해 일반화하기에 제한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인의 표집은 대표성의 제한으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둘째, 진로사고검사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규준점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준점수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마련될 수 있으나 이전의 연구(고향자, 강혜원, 2003; 박미진 등, 2001; 이재창 등, 2002)에서 미국과는 다르게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성차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성차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사고검사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학습자료인 진로사고검사 워크북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문판 원 진로사고검사에서는 진로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와 일반인을 진로사고검사가 얼마나 잘 판별해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되지 못했다. 진로사고검사가 실제로 진로상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타당도와 임상적 활용효과 등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향자,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5(2), 277-293.

김계수 (200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MBTI의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과 심리치료, 13(1), 125-146.

이경희 (2001). 진로신념검사(Career Beliefs Inventory)의 번안과 문항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69).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1997). 상담의 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이재창 (1988). 생활지도: 성장과 적응을 위한 접근. 서울: 문음사.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허자영 (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Dodge, T. D. (200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of origin and selected career development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Tech University.

Dryden, W. (1979). Rational-emotive therapy and its contribution to careers counsel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7,* 181-187.

Hackett, G., & Watkins, C. E. Jr. (1995). Research in career assess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2nd ed., pp. 199-215). Mahwah, NJ: L. Erlbaum Associates.

Judge, T. A., & Locke, E. A. (1993). Effect of dysfunctional thought processes on subjective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475-490.

Keim, J., Strauser, D. R., & Ketz, K. (2002).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career thoughts of women in three low socioeconomic status group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9*, 31-42.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24-28.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Lusting, D. C., & Strauser, D.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career thou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2-11.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Osborn, D. S. (1999).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Reed, C. A., Reardon, R. C., Lenz, J. G., & Leierer, S. J. (2001). A cognitive career course: From theory to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 158-167.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2.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Improving your career thoughts: A workbook for the Career Thoughts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Strauser, D. R., Lusting, D. C., Keim, J., Ketz, K., & Malesky, A. (2002). Analyzing the difference in career thoughts based on disability statu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2-11.

Vernick, S. H. (2002). *The application of Holland's career theory in modern day career services: Integrating the Self-Directed Search and the Career Thought Inventory.* Report at Careers Across American Conference 2002, Chicago, IL (ERIC/CASS Publication No. ED465921).

Wright, L. K. (2000). *The effects of self-efficacy, interests, and dysfunctional thoughts on level of career decidedness, and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Zunker, V. G. (2001).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원 고 접 수 일 : 2003.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18
게 재 결 정 일 : 2003. 9. 5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3, 529-550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areer Thought Inventory

Jae-Chang Lee **In-Hwa Choi** **Mee-Jin Park**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reer Thought Inventory(CTI). The CTI was based on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CIP) theoretical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services and a cognitive therapy theoretical approach to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The CTI is an instrument for the explanation of the cognitions on career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The CTI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administered to 3,811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nd adult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efficients and test-retest correlation for the CTI total score were high.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also showed. Possible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he CTI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Thought Inventory(CTI),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counseling